

남원지역과 판소리문화

김기형*

<논문개요>

남원 지역에서의 판소리 문화의 전통과 향유양상을 살펴보고, 지역에서 판소리 문화가 차지하는 위상과 앞으로의 향방을 점검해 보려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남원이 전통문화예술의 전승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었던 것은, 산세가 수려한 지리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면서 자원이 풍부하고 풍류문화가 성한 지역적, 문화적 특성에 일차적으로 기인한다. 무엇보다도 남원을 대표하는 전통문화예술은 판소리이다. 판소리 명창 후원자가 많았다는 점, 교방문화가 발달한 점, 뛰어난 명창들이 남원에서 활동한 점 등이 남원에서 판소리문화가 성행하게 된 이유이다.

판소리는 이른바 지역 유지들의 지역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유지, 강화시키고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데 활용되면서 이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로서의 위상을 강화해 왔다. 특히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1995년 이후 남원에서는 판소리를 중심으로 한 국악에 대한 지역적 관심이 이전에 비할 바 없이 매우 강하게 분출되고 있다. <춘향전>과 <홍부전>뿐만 아니라 <변강쇠가>의 고향임을 주장함으로써, ‘판소리 동편제의 텃자리’이자 판소리문화의 배경지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시 행정 당국과 민간단체의 의지가 맞물려 남원에서 판소리를 비롯한 국악에 관한 정책적 배려는 거의 절대적이다. 그런데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노정되고 있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사업 추진, 지역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경직된 의사결정 구조, 관련 전문가의 의견 수렴 절차 소홀, 장기적 안목의 결여에서 비롯된 사업 추진에 있어서의 일관성 부족, 지나친 양적 팽창의 추구로 인한 자기정체성 상실 우려 가중 등 지양해야 할 문제점이 적지 않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벗어나, 판소리 문화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제어 : 남원, 풍류문화, 동편제, 후원자, 교방문화

* 고려대 교수

차 례

1. 머리말
2. 남원 지역에 있어서 판소리문화의 전통과 향유 양상
3. 판소리 문화의 확대·강화 노력과 그 의미
4. 요청적 과제

1. 머리말

전북 동남부 지리산권에 위치한 남원은 서남 내륙지역의 중심지로서, 동쪽으로는 경남 함양군, 서쪽으로는 임실군과 순창군, 남쪽으로는 전남 구례군과 곡성군, 북쪽으로는 장수군이 인접해 있다. 지금은 남원이 인구 10만이 채 안되는 소규모 도시에 불과하지만, 조선조까지만 해도 남원은 지금보다 훨씬 규모가 크고 입지가 탄탄한 지역이었다. 남원과 분리되어 있던 운봉이 지금은 남원에 편입된 경우를 제외하면, 본래 남원에 속해 있었던 지역이 지금은 인접 지역으로 편입된 경우가 훨씬 많다. 현재 임실군에 속해있는 지사·둔덕·오지·말천·아산·석현, 순창군에 속해있는 영계, 전남 곡성군에 속해있는 고달, 전남 구례군에 속해있는 산동·소아·중방, 장수군에 속해있는 번암·진전 등은 조선조까지 모두 남원에 속해 있었다.¹⁾ 지금은 행정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데 그치지 않고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이후 지역 간 구분의식이 보다 심화되고 있지만, 문화적인 측면에서 남원과 구례, 곡성, 순창, 장수 등이 상당한 친연성을 보이고 있는 것은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에서 비롯된 것이다.

예로부터 남원은 예와 악을 숭상한 지역으로, 오늘날까지 충절의 정신과 전통예술을 중시하는 의식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강렬하게 분출되고 있

1) 김현영, 『조선시대의 양반과 향촌사회』, 집문당, 1999, 36면 참조.

는 곳이다. 정유재란 때 왜적의 침입을 막다가 전사한 만여명의 사상자가 묻혀있는 만인의총이 예(禮)의 상징이라면, 판소리는 악(樂)의 상징이다. 남원은 판소리 동편제의 텃자리로서 수많은 명창을 배출하였으며, 대표적인 고전 작품인 <춘향가>, <홍보가> 등을 산생시키는 등, 판소리 문화의 전승 발전에 크게 기여한 대표적인 지역이다.

이와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는 남원 지역에 있어서의 판소리 문화의 전통과 향유양상을 살펴보고, 지역에서 판소리문화가 차지하는 위상과 앞으로의 향방을 점검해 보려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2. 남원 지역에 있어서 판소리문화의 전통과 향유 양상

판소리가 언제 어디서 생겨나게 되었는지에 대해 정확히 알기는 어려우나, 17세기 후반 무렵에 판소리가 성립되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통설인 듯하다. 이렇게 본다면 판소리는 어림잡아 300여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설화나 무가 혹은 민요 등과 같은 여타의 구비문학 갈래에 비한다면 판소리의 역사는 무척 짧은 셈이다. 게다가 판소리는 구비문학 갈래 가운데 가장 세련된 예술적 성취를 보여주고 있으며, 그 사회적 위상 또한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 판소리가 지니고 있는 이와 같은 특성을 염두에 두면서 남원지역에 있어서 판소리의 향유양상을 점검해 보기로 한다.

(1) 남원의 지역적 특성과 문화적 배경

<동국여지승람> ‘남원도호부’조에 소개된 내용 가운데 남원의 특징적 면모를 잘 보여주는 대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풍속] “향음(鄉飲)과 사례(射禮)를 행한다 : 이 고장 사람들은 봄이 오면 용담이나 울림(栗林)에 모여 향음과 사례를 행한다.

[형승] 동쪽에는 지리산이 공어(控禦)하여 있고, 서쪽에는 중진을 떠났다. 남방에 있어 오른팔 역할을 하는 중요한 지방이다. 옥야백리(沃野百里) 천연의 부고(府庫)이다 : 황수신의 광한루기에, “남원은 옛 이름이 대방인데, 산천이 수려하고 옥야가 백리에 뻗쳐 실로 천연의 부고이다.”하였다.²⁾

남원은 신라시대에 5소경 가운데 하나에 속할 정도로 지리적 요충지였는데, 그러한 점을 위 기록을 통해서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유생들이 향약을 읽고 술을 마시며 잔치하는 향음과 궁술을 즐겨 했다는 기록으로 보아, 이 지역에 풍류문화가 성했음을 알 수 있다. 남원이 <춘향전>, <홍보가>, <만복사저포기>, <최척전>과 같은 고전 작품을 산생시키고 춘향제와 같은 축제문화를 가꾸어 오는 등 전통문화예술의 전승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었던 것은, 산세가 수려한 지리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면서 자원이 풍부하고 풍류문화가 성한 남원의 이와같은 지역적, 문화적 특성에 일차적으로 기인한다.

무엇보다도 남원을 대표하는 전통문화예술은 단연 판소리일 것이다. 동편제의 법제를 마련한 송홍록, 대표적인 판소리문학인 <춘향가>와 <홍보가>, 교방문화의 맥을 이은 국악원, 춘향을 주인공으로 한 축제 ‘춘향제’ 등이 모두 남원의 판소리문화를 대표하는 사례들이다. 앞에서 말한 지역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 남원은 소리꾼들이 득음을 위해 수련하기에 좋은 환경을 지니고 있다. 소리꾼들이 수련장소로 즐겨 선택하는 곳은 폭포, 동굴, 사찰 등이 있는 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³⁾ 남원은 인근에 유서 깊은 사찰과 폭포 등이

2) 고전국역총서 44, 『국역신증동국여지승람 5』, 민족문화추진회, 1970, 134면.

3) 오늘날 대부분의 소리꾼들은 주기적으로 ‘산공부’를 한다. ‘산공부’란 일정한 기간 동안 산에 들어가 오로지 소리공부에만 전념하는 수련방식을 말하는데, 대체적으로 보름에서 한달 정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 기간을 이용하여 스승으로부터 집중

곳곳에 산재한 지리산이 있어 소리꾼들의 수련장소로는 적격한 곳이다.

남원에서 판소리 문화가 발달하게 된 또 다른 이유로, 판소리 명창 후원자가 많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패트론 역할을 수행하는 부유한 천석꾼, 만석꾼이 있어 소리꾼들에게는 매력적인 곳이었던 남원은 경제력과 문화적 역량을 바탕으로 하여 판소리 문화를 주도해 나갔다고 할 수 있다. 가령, 운봉은 경상도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길목에 자리잡고 있어 일찍부터 상업이 발달한 곳으로 풍부한 물적 토대를 이루고 있었고, 남원에는 풍류 문화를 주도하는 토호세력이 자리잡고 있어 커다란 문화적 역량을 내재하고 있었다. 약 400여년의 전통을 지니고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는 기로회가 바로 토호세력의 조직적 집결체라 할 수 있다. 19세기 이전에 기로회가 판소리문화와 어떤 관련을 맺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실증적 사례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20세기 전반기 춘향사의 건립과 춘향제의 성립과정에서 기로회 소속 회원들이 보여준 역할을 통해 토호세력의 집결체라 할 수 있는 기로회가 판소리문화의 형성, 발전에 기여한 바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춘향이 보여준 정신을 기리기 위해 춘향사를 건립하려는 운동이 1925년 시작되어 1931년에 춘향사가 완공되는데, 권번 소속의 기녀와 더불어 춘향사 건립의 주체로 커다란 역할을 수행한 이들이 바로 기로회 소속 회원인 이현순, 강봉기, 이백삼 등이다. 이들은 전통적인 풍류의 의미와 가치를 잘 인식하고 있는 한량들이다. 이현순은 권번을 설립하고 관덕정⁴⁾을 건립했으며, 이백삼은 초대 권번 회장을 지냈고 강봉기는 한약방을 운영하면서 풍류를 즐기는 한량이었다. 춘향사가 완공된 1931년에 춘향의 영정 앞에서 제를 지낸 것이 춘향제의 시초인데, 초기 춘향제 때의 주요 종목은 판소리, 줄타기, 씨름 등과 같은 민속예술과 풍류적 성격이 농후한 궁도

적으로 소리 훈련을 받는다. 지금과 같은 '산공부'가 수련의 한 방식으로 자리 잡은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는다. 독공을 필요로 하는 판소리의 예술적 속성과 속도의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의 삶의 조건에서 '산공부'가 생겨난 셈이다.

4) 관덕정은 대표적인 풍류 가운데 하나인 궁도가 벌어지던 곳이다.

등이다. 춘향제는 이후 남원의 대표적인 축제로 성장을 거듭하면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바, 지역 경제의 활성화 뿐만 아니라 남원 민속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는 바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판소리와 춘향제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판소리가 초기 춘향제부터 주요 종목의 하나였으며, 명창의 배출 통로인 전국명창대회가 1974년부터 춘향제 기간에 열리고 있다는 사실이 그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2) 권번, 국악원 그리고 판소리

남원은 평양, 진주와 더불어 전국에서 교방문화가 가장 성한 곳이기도 하다. 남원에 있어서의 교방문화의 실상을 알려주는 자료가 거의 없어 19세기 이전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우나, 일제시대 때 기생 제도가 폐지되고 권번으로 전환된 이후의 존재 양태에 대해서는 비교적 명료하게 그 실상을 파악할 수 있다. 오늘날 국악원의 뿌리에 해당하는 권번과 판소리의 관계는 매우 밀접하다. 판소리 명창이 권번의 소리 선생으로 활동하면서 생계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여성 제자를 길러냈기 때문이다. 권번은 이후 국악원으로 개편되면서 남원 국악 발전의 중심에 위치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우여곡절을 겪게 된다. 기생조합인 권번은 국악원의 전신으로, 1921년 초 이현순이 광한루 경내에 세운 것이 남원 권번의 시초이다. 이후 1933년에 광한루 모퉁이로 옮긴 남원 권번은 명칭뿐만 아니라 장소도 여러 차례 바뀌게 되는 바, 그 과정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945년 직후 : 국악동호회가 발족되어 조광옥이 1대 회장이 됨.
- 1950년 무렵 : 권번을 국악원으로 개칭하고 초대 원장으로 김광식이 부임.
- 1971년 : 광한루 경내에 신축 된 건물(현재 관리사무소 자리)로 옮김.
- 1979년 : 새로 원사를 지은 노암동으로 옮김.

- 1983년 : 남원시립국악원으로 개편.
- 1992년 : 국립민속국악원으로 개편.
- 1996년 : 관향문화예술회관 뒤편에 국립민속국악원 건물을 신축하여 옮김.
- 1995년 : 남원의 독자적인 연주 단체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남원시립국악단이 다시 복원.
- 1998년 : 연구와 연수의 기능까지 포괄하여 남원시립국악단을 ‘남원국악연수원’으로 확대 개편. 현재 국악연수원과 국악단을 병행하여 운영.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남원국악연수원으로 개편되기 이전까지 국악원은 전적으로 국악인 스스로의 노력과 이를 뒷받침하는 동호회원들에 의해서 운영되었다는 점이다. 광한루 경내에 있던 월매집이라는 음식점에서 남긴 이익금과 공연을 통해 들어온 수익금이 국악원 운영자금으로 쓰였다. 그리고 이일우, 양해인, 강영수(공무원), 고광길(약사), 이재우(약사), 박병원(법무사) 등 국악 동호회원들의 물심양면에 걸친 도움 역시 국악원 운영에 큰 힘이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우여곡절의 과정을 거치면서도 춘향제의 주관, 전국 최초로 여성농악단 조직(2대 원장 이환량), 국악 교육 등 많은 업적을 남긴 국악원의 역사는 그대로 남원 국악의 역사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악원은 소리꾼을 배출하는 주요 통로였을 뿐만 아니라 판소리 교육을 담당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김정문(1887-1935)이 남원 권번 선생으로 있으면서 여러 명창을 길러내었으며, 그가 세상을 떠난 뒤에는 김영운(1917-1975)과 주광덕이 남원 지역 판소리 교육을 담당하였다. 1975년 김영운이 세상을 떠나자 당시까지 이곳 저곳을 떠돌며 활동하던 강도근 명창이 남원에 정착하여 1996년까지 후진 양성과 판소리 교육에 전념하였다.

강도근 명창이 세상을 떠난 후 전인삼 명창이 국악원의 중심에 위치해

있으면서 남원 판소리 교육을 담당하였다.

20세기 이후 남원에 있어서 판소리의 향유와 전승 공간으로 주목해야 할 곳이 바로 ‘요정’이다. 80년대까지만 해도 남원 시내 곳곳에 요정이 있었는데, 각 요정은 대개 2-3명의 소리 기생을 두고 있었다. 칠선옥, 일흥관, 남산관, 장충관, 금천관, 부산관 등이 70년대까지 남아있던 대표적인 요정으로, 부산관(현재 남원 시내 갑을수퍼 자리)을 제외하고 모두 광한루 부근에 있었으나 지금은 모두 광한루에 편입되었다. 이들 요정이 없어지고 나서도 광한루 후문에서 쌍교동사무소 가는 길 쪽에 위치한 ‘명문장’, ‘청월장’, ‘선유장’, ‘풍년장’ 등은 80년대까지도 지속적으로 영업을 하면서 판소리 전승에 일익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음주문화의 변화와 더불어 이들 요정들도 점차 사라져 갔으며, 현재는 광한루 후문 부근에 위치한 ‘국악이 있는 집’이라는 곳과 ‘종가집’과 같은 몇몇 한정식집에서 소리를 접할 수 있을 뿐이다.

(3) 명창들의 활동양상

남원에는 뛰어난 기량을 지닌 명창이 있어서 판소리 전승의 중심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해 나갈 수 있었다. 판소리의 중시조로 일컬어지는 송홍록이 운봉 비전마을에 거주하며 제자를 기르고 동편제의 법제를 마련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기에 남원은 판소리 동편제의 텃자리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면서 판소리사의 중심에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이다. 정노식의 <조선창극사>에서는 송홍록의 고향이 운봉 비전리라고 소개하고 있으나, 일설에 의하면 그의 고향이 함열군 곰개(熊浦)라는 주장도 있다. 현재 곰개에 송홍록과 관련된 일화(출생지, 수련 장소, 무덤 등)가 전해지고 있고 송홍록의 매부인 김성옥이 인근에 있는 강경 출신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송홍록이 곰개 출신일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하겠다.⁵⁾ 그러나 송홍록의

고향이 어디였는지 정확하게 밝히는 것도 의미 있지만 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사실은 그가 왜 남원 운봉을 활동의 터전으로 삼았는가 하는 점이다. 오히려 그가 운봉 출신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운봉에 와서 살았다고 한다면, 운봉이 명창을 흡인할만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뛰어난 명창의 존재는 그 지역의 판소리 발전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건인데, 전북 고부 출신인 박만순 같은 이가 송홍록에게 소리를 배우기 위해 운봉으로 이사를 온 사례가 그 단적인 예이다. ‘송홍록 - 송광록 - 송우룡 - 송만갑’으로 이어지는 송씨 가문의 명창들은 이후 운봉과 구례를 중심으로 활동하였던바, 전통사회에서 구례가 남원과 같은 문화권에 속해 있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결국 남원이 판소리 동편제의 중심으로서의 위상을 견고히 유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송문일가의 끝자리에 위치한 송만갑이 활동하던 20세기 전반기에 대부분의 명창들이 서울을 지향하고 있던 상황에서도 남원에는 김정문과 강도근이라는 거목이 동편제의 법통을 지키며 제자 양성에 주력하고 있었다. 김해출신의 김록주, 선산 출신의 박록주, 박초월, 강도근 등이 김정문으로부터 소리를 배웠으며, 현재 명창으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안숙선, 전인삼, 이난초 등이 강도근으로부터 소리를 배운 제자들이다. 이와같이 19세기에서 20세기에 이르는 기간 동안 남원에 당대 최고로 손꼽히는 명창이 거주하고 있었기에 남원에서 판소리문화가 꽃피울 수 있었고 수많은 명창을 배출할 수 있었던 것이다. 앞에서 거론한 이들 외에, 판소리사에 이름을 남긴 명창 가운데 남원과 직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명창으로, 강순영, 김록주, 박록주, 박봉술(구례), 박중근, 박초월, 배설향, 이중선, 이화중선, 장판개(순창), 유성준, 장자백(순창), 조상선 등을 꼽을 수 있다.⁶⁾ 현재 활

5) 이보형, 「판소리의 가왕 송홍록」, 『판소리연구』5, 판소리학회, 1994, 361-375면 참조. 필자도 1999년도에 곰개(熊浦) 지역을 답사한 적이 있는데, 옹포면 면장을 지냈던 김영철이라는 분이 송홍록이 이 지역 출신이라는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수련장소, 무덤 등을 확인시켜 주었다.

6) 그런데 이들 명창들은 대부분 친인척 관계 혹은 사승관계로 얹혀져 있다. 장자백은 유성준의 처

동하고 있는 명창 가운데에는 안숙선, 전인삼, 이난초, 김차경, 김미나 등이 남원 출신 명창인데, 모두 강도근의 제자들이다.

이와 같이 남원에는 송홍록 이후 동편제의 맥을 잇는 당대의 대명창들이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었기 때문에, 판소리 문화의 중심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해 올 수 있었던 것이다.

(4) 일반인들의 판소리 향유 양상

남원 지역에 있어서 일반인들이 판소리를 접하고 즐길 수 있는 경우는 크게 다음의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① 잔치나 회갑연 등에서 소리꾼을 초청하여 벌이는 판.
- ② 요정과 같은 음식점에서 벌이는 소리판.
- ③ 춘향제 기간에 벌어지는 소리판.
- ④ 국립국악원이나 시립국악단에서 시행하는 판소리 강습.

①은 전통사회에서 흔히 확인할 수 있는 판소리 향유 형태로, 남원지역에서도 20세기 전반까지 이러한 공연이 자주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소리꾼을 초청한 집안사람들뿐만 아니라 인근 마을 주민들도 소리판에 참여하여 소리를 감상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20세기에 들어와 여악과 판기제도가 폐지되고 기생조합인 권번이 새로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이와 더불어 요정과 같은 음식점이 국악의 주요 공연 공간으로 대두하게 되는데, ②는 이 시기 판소리 향유의 한 형태이다. 그런데 일정한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요정에 출입하기 쉽지 않았던바, 지역의 이른바 유지나 혹은 일정한 사회적 지위를 점하고 있는 관료 등 한정된 부류의 사람

외삼촌이며, 김정문은 장자백과 유성준의 생질이다. 그리고 이화중선은 장자백 집안에 속하는 장덕진에게 시집을 가서 소리를 배웠고, 배설향은 장판개의 부인이다.

들만이 요정 등에서 판소리를 즐길 수 있었다. 대다수의 일반 서민들이 판소리를 향유하는 방식은 ③과 ④를 통해서이다. 춘향제는 1931년 춘향사에서 춘향 영정에 제를 지내면서 시작된 것인데, 앞에서 말한 바 있듯이 판소리는 초기부터 춘향제 행사의 주요 종목 가운데 하나였다. 흔히 남원 사람들은 “춘향제 때 벌어 일년 먹고 산다”는 말을 한다. 그만큼 춘향제의 비중이 크다는 말이다. 축제가 열리면 인근 지역 주민들까지 몰려드는데, 축제 가운데 광한루원에서 열리는 판소리 공연이 인기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었으며 1974년부터 열리고 있는 전국명창대회(1998년부터 춘향국악대전으로 확대 개편되어 경연 종목도 많아짐)는 오늘날까지 춘향제의 대표적인 행사로 자리 잡고 있다.

남원시립국악단이나 국립민속국악원에서 주관하는 판소리 강습도 일반 시민들에게 판소리를 배우고 익힐 수 있는 매우 소중한 기회인데, 이러한 일반인 강좌가 판소리 문화의 저변 확대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것은 물론이다.

그리고 남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명창들이 개인 교습 등을 통해 제자들을 기르는 사례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전문적인 소리꾼을 양성하는데 목적을 두는 경우가 많다. 한편 남원이 배출한 대표적인 소리꾼 가운데 한 사람인 전인삼은 대학 재학중이던 1983년 남원청년국악인회를 만들어 활동한 바 있는데, 1991년 남원 출신 국악인들의 모임체인 ‘남원악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면서 일반인들에게 판소리를 강습하였다. 특히 그는 1991년부터 1995년까지 그에게서 소리를 배운 사람들을 중심으로 판소리 동호인 모임 ‘추임새’를 만들어 판소리의 대중화와 저변 확대를 위한 실천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도 하였다. 이 기간 동안 추임새를 거쳐 간 인원이 대략 1000여명이 된다고 하니, 그 성과가 대단하다고 할 수 있다.

3. 판소리 문화의 확대·강화 노력과 그 의미

이상에서 간략하게나마 1990년대 이전 남원에서 판소리문화 향유양상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1995년 이후 각 지역에서는 그 지역만의 독자성을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문화상품 개발에 치중하기 시작하면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양적, 질적 변모를 보이기 시작한다. 각종 축제가 난립하고 작품 속의 인물을 실제 인물로 비정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남원도 예외가 아니어서 판소리를 중심으로 한 국악에 대한 지역적 관심은 이전에 비할 바 없이 매우 강하게 분출되고 있다. 남원에서 판소리를 중심으로 하여 국악의 외연을 넓히고 <춘향전>과 <흥부전>뿐만 아니라 <변강쇠가>의 고향임을 주장함으로써, ‘판소리 동편제의 텃자리’이자 판소리문학의 배경지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 직접적 증거이다.

현재 남원정보국악고등학교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이상호는, “남원에 가서 소리자랑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어른들로부터 많이 들었다고 하면서 국악인이 모여있는 곳에서 이 말을 자주 한다. 이 지역의 판소리 전통을 고려해 볼 때, 남원은 이러한 말을 들어도 좋을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표현은 “진도에 가서 소리자랑 하지 말라”는 이야기만큼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다고 본다. 필자의 견문이 좁은 탓도 있겠으나, 이상호가 말한 사례를 제외하면 남원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경우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호가 이러한 표현을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데에는 이 지역 판소리문화를 주도하는 집단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

남원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판소리문화를 주도하고 있는 이른바 지역 유지와 행정기관지방자치제가 추진해온 일련의 국악 관련 주요

사안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남원민속국악진흥회 조직

1993년에 남원민속국악진흥회가 사단법인체로 조직되어, 한국국악협회 남원지부를 겸하고 있다. 춘향제 행사 종목의 하나인 ‘춘향국악대전’을 비롯하여, 남원에서 추진·시행되는 국악관련 사업이나 행사를 주관하는 주무부서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

② 홍부제 : 1980년부터 홍부 마을 찾기운동이 시작되었다. 1992년 인월면 성산리를 홍부 출생지로, 아영면 성리를 발복지로 비정함으로써, 남원은 홍부의 고장이 되었다. 이를 기념하여 1993년부터 축제 ‘홍부제’가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옥내행사로 2일간 치뤄지다가, 현재는 행사기간도 다소 길어지고 규모도 커졌다. 홍부전에 대한 캐릭터를 만들어 상품화를 꾀하고 있다.

③ 남원상업고등학교의 국악정보고등학교로의 전환

남원상업고등학교를 1997년 남원정보국악고등학교로 개명하였다. 자구책의 일환으로 교명을 바꾸게 된 측면이 없지 않지만, 판소리 동편제의 텃자리라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국악 전공 학교로 바꾸었다고 할 수 있다. 국악 관련 세부 전공으로는 국악성악과, 국악기악과, 무용과가 있다. 이 가운데 국악성악과는 판소리와 가야금 병창 전공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학년별 전공인원은 30명이다.

④ 전국명창대회를 춘향국악대전으로 확대 개편

전국명창대회는 춘향제 기간에 열리는 대회로, 1974년 제44회 춘향제 때 제1회 전국명창대회가 처음 개최되었다. 대회를 개최하는 데 있어 당시

국회의원을 지냈던 천석지기 양해준의 역할이 컸다. 1983년에는 문공부장관상, 1984년에는 국무총리상이 최고였으나, 1985년부터 대상에 대통령상을 시상하였다. 현재는 대통령상을 내건 명창대회가 아홉개에 이르지만, 남원전국명창대회만큼 유서가 깊고 권위와 명성을 자랑하는 대회는 전주대사습 정도 이외에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이 대회를 통해 배출된 역대 명창이 우리 시대 최고의 소리꾼으로 평가받는 데 전혀 손색이 없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해 준다. 1998년부터 춘향국악대전으로 확대 개편하면서, 판소리 부문에 더하여 기악관악·기악현악·가야금 병창·무용·민요 부문이 경연 종목에 추가되었다.

⑤ 변강쇠와 웅녀의 상품화 : 2000년 남원은 산내면 대정리 일명 변강쇠 계곡이 변강쇠와 웅녀가 살았던 곳이라 하여 이곳에 변강쇠, 웅녀 공원을 조성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변강쇠와 웅녀 캐릭터를 개발하여 지역 특산품의 상표로 활용하고 있다. 이후 변강쇠의 배경을 두고 함양 지역과 논전을 벌이기도 하였다.

⑥ 국악의 성지 조성사업

국악의 성지 조성사업은 2002년 - 2006년에 걸쳐 완공할 계획으로 있다. 국비 45억원, 도비 22억5천만원, 시비 22억5천만원 등 총 9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국악체험관, 국악한마당, 참배시설 등을 설치하여, 동편제 판소리의 전승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다.

⑦ 판소리대학 설립 추진

남원시는 한국국악협회 그리고 민속국악진흥회 등과 함께 전북 남원시 운봉읍 화수리 일대 2만5천여평의 터에 4년제 판소리대학을 설립하기 위해 매우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미 '대학 유치 추진위원회'를 구성함

으로써⁷⁾ 실천적인 작업을 위한 첫발은 내딛은 셈이다. 현재로서는 창악을 비롯하여 기악, 무용, 작곡, 악기 제작 등 4개의 국악 관련 학과 설치, 2천 여석의 창극전용 극장과 200석의 판소리 전용극장 건립 등을 목표로 하여 국립대로 설립할 계획이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도 차원에서 운영되는 독립대학으로 설립할 것도 염두에 두고 추진 중에 있다.

⑧ 남원 향토박물관과 춘향테마파크 조성

2004년 개관한 남원향토박물관은 역사마당과 문학마당, 민속마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역사마당에 123점, 문학마당에 65점, 민속마당에 119점, 기획 전시시설에는 73점의 문화유물 등이 전시되어 있다. 143억원을 들여 조성한 춘향테마파크는 조선중기 때의 동헌 등 15동의 건축물과 춘향·몽룡 등의 모형 14종, 종합안내관을 포함한 36점의 각종 시설물로 구성되어 있다.

⑨ 옥보고 거문고 축제

통일신라시대 거문고의 대가 옥보고가 활동했다고 전해지는 운상원은 바로 운봉의 옛이름이라 하여, 이를 기념하여 2003년에 남원민속국악진흥회 주관으로 '제1회 악성 옥보고 전국 거문고축제'를 개최하였다.

1995년을 전후한 시기에 남원에서 시행된 국악 관련 사안을 정리해 보았다. 이 가운데에는 상당한 액수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남원시의 재정 규모에 비추어 볼 때 결코 만만치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이러한 일련의 사안들을 추진해 나가는 데

7) 2004년 2월 26일 남원시청에서 국악계와 학계 그리고 해당 지역 구성원 등이 대거 참석하여 발족식을 가졌다.

있어 시 행정 당국이 매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이다. 민과 官의 관계를 과거처럼 긴장관계로만 파악할 것은 아니며, 특히 지방자치제의 실시 이후 민과 관은 상보적 협력관계로 자리잡아 나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 행정당국의 적극적 개입과 사업 추진의지 자체를 문제삼을 필요는 없다고 본다. 판소리를 중심으로 한 국악에 대해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과감하게 투자함으로써 국악의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대내외에 각인시키고 나아가 문화콘텐츠화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남원시의 실천의지는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시 행정당국과 더불어 각종 사안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 남원민속국악진흥회로 대표되는 민간단체의 영향력 또한 막강한 편이다. 특히 현재 남원정보국악고등학교 이사장이자 (사)민속국악진흥회 이사장인 이상호(1951-)가 남원 지역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매우 각별하다 하겠다. 이상호는 상당한 경제력을 기반으로 하여 1983년 부터 남원 국악계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 인물이다. 그의 집안은 국악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그 또한 처음에는 국악에 관심이 전혀 없었다. 그가 국악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1983년 새마을금고 100억돌과 기념행사가 끝나고 가진 뒷풀이에서 소리꾼이 부른 ‘흥타령’을 듣고부터였다. 이때 그는 우리 소리를 듣고 전율을 느꼈다고 한다. 그러나 그가 국악에 관심을 갖고 본격적으로 남원 국악관련 행사나 정책에 관여하게 된 또 다른 이유는, 국악을 알고 이를 잘 활용하면 남원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가 보다 용이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그는 “남원에서 주인 노릇을 하려면 국악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한 바 있다.⁸⁾ 덧붙여 그는 국악 이야기만 나오면 기관장들이 꿈쩍을 못하더라고하면서, 누군가로부터 남원 국악만 잡으면 우리나라 국악도 다 잡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다고 하였다.

남원에는 세 개의 주요 단체가 있다. JC(청년회의소), 라이온스, 중앙

8) 이상호 증언. 2004년 7월 4일, 남원 관광단지 내 카페 “로미오와 성춘향”에서.

로타리가 그것인데, 이들 회원들간에 반목이 심하였다고 한다. 1993년 이상호는 세 단체의 장을 모아, 회원들간에 반목하지 말고 지역발전을 위해 “국악을 키우자”고 제안하며 이들 회원을 중심으로 하여 국악협회 남원지부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사단법인 남원민속국악진흥회를 결성하여 국악협회 남원지부를 겸하게 되었는바, 남원민속국악진흥회의 조직과 더불어 그는 본격적으로 국악관련 계통에서 발언권을 행사하게 된다. 국립국악원의 유일한 지방분원이었던 국립민속국악원을 남원에 유치할 수 있게 된 데에도 이상호의 역할이 매우 컸다. 전국명창대회를 춘향국악대전으로 확대 개편한 것이나 국악의 성지 조성 사업 그리고 판소리대학설립 추진 등 제반 사안의 중심에는 언제나 이상호가 있다.

시 행정 당국과 민간단체의 의지가 맞물려 남원에서 판소리를 비롯한 국악에 관한 정책적 배려는 거의 절대적이라 할만하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적 배려의 순수성을 어느 정도 인정한다 하더라도,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사업 추진, 지역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경직된 의사결정 구조, 관련 전문가의 의견 수렴절차 소홀, 장기적 안목의 결여에서 비롯된 사업 추진에 있어서의 일관성 부족, 지나친 양적 팽창의 추구로 인한 자기정체성 상실 우려 가중 등 지양해야 할 문제점이 적지 않은 것이다.

4. 요청적 과제

남원은 인구가 10만이 채 안되는 조그마한 소도시이다. 지리산이 도시를 감싸고 있어 자연경관이 수려하며, 곳곳에 국악 관련 문화가 산재해 있는 풍류의 도시이다. 특히 남원은 판소리 동편제 탯자리로서의 자부심을 대단히 강하게 지니고 있다. 앞에서 살펴 본 것처럼, 남원 국악의 역사를

고려하면 그러한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셈이다. “남원 = 동편제의 발상지”라는 식으로 이미지화되어 있지만, 실은 남원에는 선원사, 선국사, 용담사, 만복사지 등과 같이 유서깊은 사찰과 박석치, 버선발, 오리정 등 <춘향전>의 배경이 된 공간이 곳곳에 있다. 역사적 문화적 의미가 담겨있는 이러한 유산을 잘 가꾸어 나감으로써 남원이 문화가 살아숨쉬는 도시가 되었을 때, 판소리 또한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로써 더욱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지방자치제의 전면적 실시와 더불어, 각 지역마다 그 지역만이 보여줄 수 있는 문화적 자산을 콘텐츠화하고 이를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노력이 강하게 표출되고 있다. 남원에서 국악 특히 판소리의 콘텐츠화에 전력을 기울이는 것은 남원의 역사성과 전통성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 생각한다.

그렇지만 진정 남원이 판소리 나아가 국악의 도시로서 명실상부하게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시 행정당국이나 민간단체 등이 그동안 보여온 행동양식에 대한 자기반성적 성찰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정치적 입장이나 이해득실에 따라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서는 곤란하다.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일관성있게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

상당한 예산을 들여 국악의 성지를 조성한다고 하는데, 그 현실성에 대해 얼마나 깊이있게 따져보았는지 의문이다. 판소리가 생활 속에서 살아 숨쉴 수 있도록 저변을 확대하고 대중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소리꾼 지망생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미래의 명창을 길러내는 일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판소리대학 설립 추진에 관한 사안은 어떤가. 기본적으로는 창극상설공연과 창극배우 양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하는데, 운봉지역이 동편제 탯자리로서의 상징성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너무 외진 곳에 위치해 있어 대학을 건립하기에 적당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수요와 공급이라

는 측면에서 볼 때 과연 정원을 충족할 수 있는가, 있다 하더라도 졸업 후의 진로는 어떻게 상정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말하자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할 경우 도태되는 대학이 생겨날지도 모르는 현 상황에서 판소리대학의 건립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는 것이다. 어쩌면 국립대학이나 우수 사립대학에 판소리 관련 전공학과가 개설되는 것이 더 현실적인 방안이 될지도 모른다. 지역 주민의 열망과 성원을 바탕으로 하여 추진 주체들이 의지를 가지고 국가 차원에서의 적극적 지원을 이끌어 낸다면 판소리대학 건립이 불가능하지만은 않겠지만, 제반 사항에 대한 치밀한 검토 없이 일을 추진했을 경우, 성과는 없이 예산만 낭비하고 말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전국명창대회를 춘향국악대전으로 확대하여, 판소리, 기악, 무용, 가야금 병창, 민요 부문에서 기량을 겨루는 종합적인 민속국악축제로 개편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종목을 확대하여 백화점식으로 나열하여 진행하기보다는 판소리 명창대회만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명실상부한 명창의 등용문으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하는 쪽이 훨씬 의미있을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판소리 동편제의 텃자리라는 지역의 문화적 배경과도 부합하기 때문에 그 의의가 배가될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고전국역총서 44, 『국역신증동국여지승람 5』, 민족문화추진회, 1970, 133-155면.
김기형, 「송문일가의 판소리사적 의의와 동편제의 맥」, 『돈암어문학』11, 돈암어문학회, 1999, 257-283면.
김기형, 『강도근 5가전집』, 도서출판 박이정, 1998, 327-339면.
김현영, 『조선시대의 양반과 향촌사회』, 집문당, 1999, 19-238면.
이보형, 「판소리의 가왕 송홍록」, 『판소리연구』5, 판소리학회, 1994, 361-375면.
정노식, 『조선창극사』, 조선일보사, 1940, 1-257면.
정병헌, 『판소리와 한국문화』, 역락, 2002, 1-273면.
최동현, 「장자백과 그 일가의 판소리 인맥에 관한 연구」, 『판소리연구』16, 판소리학회, 2003, 337-364면.
춘향문화선양회 편, 『춘향제 70년사』, 사단법인 춘향문화선양회, 2001, 1-306면.

* 본 논문은 2004 하계학술발표회(2004.7.10-14)에서 발표와 토론을 거친 논문으로 2005년 5월 11일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를 확정함.

<Abstract>

Region of Namwon and culture of Pansori

Kim, Kee-Hyung(Korea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the tradition and enjoying aspects of pansori, phase and direction in region of Namwon .

Namwon is the region that do much for development of cultural heritage. That is primarily caused by regional and cultural character of Namwon that is rich in resources and mare remarkable growth of the poetical 'pungryu' culture.

Above all the representative cultural heritage is Pansori. The growth of Pansori in region of Namwon result from many patron, the growth of 'kyobang' culture, the lively activity of master singer in this region.

Since 1995, implemented local autonomy system in Namwon the interest in Pansori and korean classical music has deeply aroused. The municipal authorities have common interests in Pansori and korean classical music with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So both of them are very aggressive in pursuing the financial policy of Pansori and korean classical music.

But Avarious problems have stemed in the proccess of pursuing the policy. It's setting a project according to political interests, insufficient reflex of public opinion, relaxing professional advice, lack of a long-range policy and being inconsistent in setting a project that is settled. It is necessary to activate the culture of Pansori regardless of political interests.

Key Word : Namwon, Pungryu culture, Dongpyeonje, Patron, Kyobang culture